

일부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이 출산인식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분석

김승희, 배상윤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Job Seeking Stress, Hopelessness and Depression on Childbirth Perception among Some College Women

Seung-Hee Kim, Sang-Yun Bae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Vision University of Jeonju

요 약 본 연구는 일부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과 출산인식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출산인식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전북지역의 3개 대학에서 임의로 선정된 531명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일반적특성에 따른 출산인식 점수는 연령이 높은군에서, 종교가 있는군에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군에서, 비음주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취업스트레스가 높은군에서, 무망감은 중증도와 중도군에서, 우울은 경도군에서 출산인식 점수가 높았다. 출산인식은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과 출산인식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취업스트레스는 무망감 및 우울보다는 출산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출산인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보건교육에 활용이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출산인식에 융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제어 : 융복합적 영향,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우울, 출산인식, 구조방정식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convergent influence on childbirth perception and its association with job seeking stress, depression and hopelessness among some college women.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531 college women in Jeonbuk area from March 28th to April 29th, 2016. The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used. The childbirth perception of responden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ly higher in following groups: that of old age, that of religion, that of school life satisfaction, that of non drinker. The childbirth perception are significantly higher in higher job seeking stress group, moderate & severe hopeless group and moderate & major depression group. The childbirth percep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 seeking stress, hopelessness and depression. With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 we could confirm relationship among the four factors such as job seeking stress, hopelessness, depression and childbirth perception. Job seeking stress was more influential on the childbirth perception than hopelessness and depression. Th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health education to increase the positive thinking of childbirth perception of the college women. In the following study, the analysis about additional factors of convergent influence on childbirth perception will be needed.

Key Words : Convergent influence, Job seeking stress, BHOP, CES-D, Childbirth perception, SEM

Received 1 August 2016, Revised 2 September 2016
Accepted 20 September 2016, Published 28 Sept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Sang-Yun Bae(Vision Univ. of Jeonju)
Email: sangyb@jvision.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960년대에는 6.0명이었으나, 1983년에는 저출산사회의 기준인 인구대체수준 2.1명에 도달한 이후, 1987년 1.6명, 2007년 1.25명, 2015년 1.24명으로 감소하고 있다[1]. 출생아수는 1970년 1,006,645명, 1987년 623,831명, 2007년 493,189명, 2015년 438,70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1].

인구대체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합계출산율이 계속 지속되어 저출산 현상이 고착된다면 인구 감소에 의한 노동력의 부족, 고령자 부양부담 증가, 사회보장부담 증가, 세수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2, 3]. 저출산 문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야기할 수 있어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4, 5].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나 출산에 대한 바람직한 변화는 미비한 실정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회 각 방면의 자발적 노력과 효과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출산인식은 출산에 대한 생각, 가치 및 의지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출산인식으로 종족을 유지하고자하는 본능인 출산에 대한 개인의 욕구 및 선택에 대한 결정을 예측해 볼 수 있다[3]. 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긍정적인 출산인식을 가진 후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출산행동이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출산인식은 출산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출산인식과 관련된 변인을 찾아보는 것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여대생은 가까운 장래에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여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고 출산할 수 있는 인구군이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여대생의 긍정적인 출산인식을 높이는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과 출산장려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여대생의 출산인식 및 관련변수를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취업스트레스는 성격, 취업불안, 전공분야 학습, 자격증 취득, 공인영어점수 획득, 사회진출 관련 분야의 봉사,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법 습득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야기되고 있다[6]. 취업스트레스는 청년실업률, 취업경쟁 및 고용불안의 증가에 의해 가중되어 여대생의 여러 정

신적 문제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7]. 무망감(hopelessness)은 부정적 미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을 때, 계획성의 부족 및 긴장감 등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우울 등의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7]. 우울은 개인의 희망과 현실적인 성취 정도의 차이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침울, 상실감, 무력감 등의 정신적 문제를 의미한다[6]. 취업스트레스는 성격, 취업불안, 가족환경, 학교환경 및 학업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되어 우울 및 무망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8]. 취업여부 및 취업스트레스의 수준, 취업기회의 증대 및 개인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출산인식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9, 10]. 무망감 및 우울은 여대생의 정신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6, 7]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취업스트레스는 무망감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무망감은 우울에 영향을 미쳐,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은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문제와 관련된 기존연구에서 대학생의 출산정책과 출산인식[5], 대학생의 가족가치관과 출산의도[2, 11], 기혼여성의 취업여부 및 배우자 양육참여와 출산의도[10], 직장여성의 출산의도[9] 등을 조사하고 보고하고 있으나,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우울 및 출산인식과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요인들이 출산인식에 미치는 상대적인 중요도와 영향력을 규명해보는 융복합적인 접근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학교생활특성 및 건강행위요인 뿐만 아니라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 수준에 따른 출산인식 점수를 알아보고 이들 변인이 출산인식에 대한 상호관계와 융복합적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우울 및 출산인식의 상호관계와 요인간의 융복합적 영향력을 파악하여 장래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여대생의 출산인식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높이는 보건교육의 내용 개발 및 시행과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전북지역에서 합계출산률이 낮은 대도시 지역[1]의 3개 대학을 임의로 선정하여 여대생 250명씩 합계 75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654명으로부터 회수하였으며, 부실응답 설문지 123개를 제외한 531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2016년 3월 28일부터 2016년 4월 29일까지의 조사기간 동안에 연구윤리 및 조사내용을 숙지한 조사원이 대학을 방문하여 여대생들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를 배포하고 직접 작성토록 하여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2.2 조사도구

설문지는 일반적특성으로 인구사회학적 11문항, 학교생활 5문항 및 건강관련행위 7문항으로 하였고 취업스트레스 22문항은 성격스트레스 6문항, 가족환경스트레스 5문항, 학업스트레스 4문항, 학교환경스트레스 4문항, 취업불안스트레스 3문항으로 하였다. 무망감은 20문항, 우울은 20문항, 출산인식은 10문항으로 하였다.

취업스트레스는 Cornell Medical Index(CMI)를 기초로, 수정 및 보완한 취업스트레스 검사 22문항[8]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5개의 하위영역으로 성격스트레스 6문항, 가족환경스트레스 5문항, 학업스트레스 4문항, 학교환경스트레스 4문항, 취업불안스트레스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22점에서 110점까지로 분포되고 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낮은군」과 「높은군」으로 구분하여 출산인식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내적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941이었다.

무망감 수준의 측정은 Beck Hopelessness Scale(BHOP) [12]를 토대로 신민섭 등[13]이 재구성한 무망감 척도로 20문항을 이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20점까지로, 높은 점수일수록 무망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Beck[14]의 점수범위에 따라 BHOP 총점이 3점 이하인 군을 「정상군」, 4점에서 8점까지를 「경도군」, 9점에서 14점까지를 「중증도군」, 15점 이상을 「중도군」으로 구분하여 출산인식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내적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886이었다.

우울수준의 측정은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에서 역학조사용으로 개발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15]의 한국판 CES-D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0점까지로 분포되고 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ho 등[16]의 점수 범위에 따라 CES-D 총점을 16점 미만을 「정상군」, 16점에서 24점까지를 「경도 우울군」, 25점 이상을 「우울군」으로 구분하여 출산인식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내적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0.927이었다.

출산인식은 Bailey K. D.[17]의 출산에 대한 인식 척도 10문항[18]을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0점까지로, 높은 점수일수록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설문지 내적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672이었다.

2.3 자료처리

통계분석은 SPSS(ver 22.0)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교생활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에 따른 출산인식의 비교는 t-test 및 ANOVA로 검정하였다.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과 출산인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입력행렬은 SPSS(ver 22.0)을 사용하여 AMOS에 의한 Spearman 상관계수행렬을 사용하였으며 최대우도법으로 모수를 추정하였다. 구조방정식에 사용된 변수는 각 모형 구성요소를 잠재변수로 하고 각각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관측변수로 선택하였다. 변수의 선택은 각 경로에 대한 개별적인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이론적인 모형을 지지하면서도 모형적합도에 있어서 적절한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를 선택하였다. 외생 잠재변수로는 취업스트레스를, 내생잠재변수는 무망감, 우울과 출산인식을 구조방정식모형에 포함시켰으며, 각 경로계수는 유의한 것만을 경로도와 함께 표기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출산인식

<Table 1> Mean scores of Childbirth percep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	Childbirth perception Mean±SD	t/F	p-value*
Age			4.591	0.011
≤18	150(28.2)	3.44±1.97		
19-20	230(43.3)	3.67±2.12		
21≤	151(28.4)	4.16±2.27		
BMI(kg/m ²)†			2.431	0.064
≤18.4	173(32.6)	4.01±2.33		
18.5-22.9	327(61.6)	3.67±2.05		
23.0-24.9	21(4.0)	2.90±1.58		
25.0≤	10(1.9)	3.10±1.66		
Religion			2.280	0.023
Yes	247(46.5)	3.97±2.13		
No	284(53.5)	3.55±2.13		
Siblings			-0.922	0.357
Yes	504(94.9)	3.72±2.12		
No	27(5.1)	4.11±2.39		
Raised areas			-1.473	0.141
Country or small city	168(31.6)	3.54±2.17		
Big city	363(68.4)	3.83±2.12		
Parent present			0.984	0.374
Both alive	480(90.4)	3.73±2.15		
Single alive	49(9.2)	3.98±1.96		
All death	2(0.4)	2.00±1.41		
Economics status of family			0.315	0.815
Very difficult	26(4.9)	3.65±2.07		
Difficult	230(43.3)	3.77±2.03		
Good	261(49.2)	3.75±2.17		
Very good	14(2.6)	3.21±3.29		
Parents having job			1.783	0.149
Both having	292(55.0)	3.59±2.16		
Father only	193(36.3)	3.93±2.17		
Mother only	39(7.3)	3.72±1.81		
None	7(1.3)	5.00±0.82		
Parental rearing perceptions			0.349	0.790
Very acceptable	97(18.3)	3.80±2.11		
Acceptable	303(57.1)	3.75±2.11		
Strict	116(21.8)	3.74±2.30		
Very strict	15(2.8)	3.20±1.32		
Home atmosphere			1.990	0.138
Very good	217(40.9)	3.81±2.00		
Good	292(55.0)	3.76±2.24		
Bad	22(4.1)	2.86±1.75		
Family life satisfaction			0.455	0.714
Very satisfied	187(35.2)	3.77±2.04		
Satisfied	291(54.8)	3.75±2.19		
Dissatisfied	45(8.5)	3.49±1.93		
Very dissatisfied	8(1.5)	4.38±3.42		
Total	531(100.0)	3.74±2.13		

† BMI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under weight group(≤18.4 of BMI score), normal weight group(18.5≤ BMI score≤ 22.9), over weight group(23.0≤ BMI score≤ 24.9), obese group(25.0≤ BMI score)

* : p-value by t-test or ANOVA.

전체조사대상자 531명의 출산인식 점수는 0점에서 10점의 범위에서 평균 3.74±2.13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출산인식은 연령이 높은군이(F=4.591, p=0.011), 종교가 있는군이(t=2.280, p=0.023)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체질량지수, 형제유무, 성장지역, 양친의 생존여부, 가정의 경제적 상태, 양친의 직장여부, 보호자의 양육태도, 가정의 분위기, 가족생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3.2 학교생활 특성별 출산인식

학교생활 특성별 출산인식은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군이(F=3.201, p=0.023)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성적, 교수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폭력경험 유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Table 2> Mean scores of Childbirth perception according to school life characteristics

Variables	N(%)	Childbirth perception Mean±SD	t/F	p-value*
School record			0.573	0.633
Very good	33(6.2)	3.79±2.56		
Good	113(21.3)	3.81±2.19		
Average	265(49.9)	3.63±2.05		
bad	120(22.6)	3.92±2.16		
Relationship with the Professor			0.383	0.766
Very good	34(6.4)	4.00±2.58		
Good	477(89.8)	3.71±2.12		
Medium	16(3.0)	4.13±1.82		
Bad	4(0.8)	3.50±1.29		
Relationship with the friend			0.566	0.638
Very good	108(20.3)	3.71±2.19		
Good	416(78.3)	3.75±2.12		
Medium	5(0.9)	3.20±2.28		
Bad	2(0.4)	5.50±2.12		
School bullying or violence experienced			1.015	0.311
Yes	27(5.1)	4.15±2.81		
No	504(94.9)	3.72±2.09		
School life satisfaction			3.201	0.023
Very satisfied	50(9.4)	3.72±2.52		
Satisfied	381(71.8)	3.73±2.05		
Dissatisfied	96(18.1)	3.66±2.14		
Very dissatisfied	4(0.8)	7.00±3.46		
Total	531(100.0)	3.74±2.13		

* : p-value by t-test or ANOVA.

3.3 건강관련행위 특성별 우울수준

건강관련행위 특성별 출산인식은 음주를 하지 않는군이(t=-0.445, p=0.014)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흡연 유무, 규칙적 식사, 규칙적 운동, 적절한 수면, 취미 및 여가생활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Table 3> Mean scores of childbirth perception according to health related behavior factors

Variables	N(%)	Childbirth perception Mean±SD	t/F	p-value*
Cigarette smoking			2.271	0.104
Yes	34(6.4)	3.21±1.86		
No	472(88.9)	3.75±2.17		
In the past, smokers	25(4.7)	4.40±1.76		
Alcohol drinking			-0.445	0.014
Yes	400(75.3)	3.61±2.10		
No	131(24.7)	4.14±2.20		
Regular Eating			0.110	0.909
Yes	173(32.6)	3.76±2.29		
No	358(67.4)	3.74±2.06		
Regular exercise †			0.299	0.765
Yes	87(16.4)	3.81±2.16		
No	444(83.6)	3.73±2.13		
Sleeping time(hour)			-1.711	0.088
<7	293(55.2)	3.60±1.99		
7 ≤	238(44.8)	3.92±2.30		
Hobbies & leisure life			0.326	0.807
Very enough	21(4.0)	4.10±2.86		
Enough	224(42.2)	3.76±2.17		
Not enough	242(45.6)	3.73±2.06		
Very insufficient	44(8.3)	3.55±2.01		
Subjective Health status			0.512	0.674
Very good	45(8.5)	4.04±2.71		
Good	355(66.9)	3.72±2.11		
Bad	125(23.5)	3.67±1.91		
Very bad	6(1.1)	4.33±3.44		
Total	531(100.0)	3.74±2.13		

† : At least three times a week, more than 30 minutes at a time.

* : p-value by t-test or ANOVA.

3.4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우울에 따른 출산인식

조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우울에 따른 출산인식을 취업스트레스의 5개 하위영역인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를 중앙값을 기준으로 「낮은군」과 「높은군」으로 구분하고, 무망감 점수는 정상군(3점 이하), 경도군(4-8), 중증도군(9-14), 중도군(15이상)으로 구분하고, 우울 점수는 16점 미만을 「정상군」, 16점에서 24점까지를 「경도 우울군」, 25점 이상을 「우울군」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인식은 성격스트레스가 높은군이(t=-3.384, p=0.001), 가족환경스트레스가 높은군이(t=-3.097, p=0.002), 학교환경스트레스가 높은군이(t=-3.361, p=0.001), 취업불안스트레스가 높은군이(t=-2.927, p=0.004), 무망감은 중증도 및 중도군이(t=-2.227, p=0.026), 우울은 경도군이(F=5.067, p=0.007)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취업스트레스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 Childbirth perception according to job seeking stress, hopelessness and depression

Variables	N(%)	Childbirth perception Mean±SD	t/F	p-value*
Personality stress [§]			-3.384	0.001
Low group [§]	279(52.5)	3.44±1.94		
High group	252(47.5)	4.07±2.29		
Home environment stress			-3.097	0.002
Low group	283(53.3)	3.47±2.00		
High group	248(46.7)	4.05±2.25		
Schoolwork stress			-1.890	0.059
Low group	266(50.1)	3.56±2.05		
High group	265(49.9)	3.92±2.21		
School environment stress			-3.361	0.001
Low group	242(45.6)	3.41±1.99		
High group	289(54.4)	4.02±2.21		
Unstable job stress			-2.927	0.004
Low group	349(65.7)	3.54±2.10		
High group	182(34.3)	4.13±2.32		
Hopelessness			-2.227	0.026
Normal & mild group	466(87.8)	3.67±2.07		
Moderate & severe group	65(12.2)	4.29±2.52		
Depression [¶]			5.067	0.007
Normal group	259(48.8)	3.44±1.85		
Moderate group	142(26.7)	4.07±2.42		
Major group	130(24.5)	3.98±2.27		
Total	531(100.0)	3.74±2.13		

§ : Low and high group classified by the median score of each variable.

|| : Hopelessness level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normal & mild hopelessness group(≤8 of BHOP score), moderate & severe hopelessness group(9 ≤ of BHOP score).

¶ : Depression levels were dichotomize into divided into three groups, normal group(<16 of CES-D score), moderate group(16 ≤ of CES-D score ≤24) and major group(25 ≤ of CES-D score).

* : p-value by t-test or ANOVA.

3.5 출산인식과 관련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출산인식과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출산인식은 성격스트레스(r=0.167, p<0.01), 가족환경스트레스(r=0.153, p<0.01), 학업스트레스(r=0.133, p<0.01), 학교환경스트레스(r=0.174, p<0.01), 취업불안스트레스(r=0.194, p<0.01), 무망감(r=0.053, p<0.05), 우울(r=0.125, p<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3.6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1개의 외생개념(취업스트레스)과 3개의 내생개념(무망감, 우울, 출산인식)을 이론적 변수로 모델을 구축하였다.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관측변수는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로 하였다 무망감에 대한 관측변수는 BHOP로 하였고, 우울수준에 대한 관측변수는 CES-D로 하였다. 출산인식에 대한 관측변수는 출산인식으로 하였다.

모델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에서 $\chi^2=9.668(df=11)$ 이며, 유의확률은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치 0.05이상

인 $p=0.561$ 으로 모델은 적합하였고, 원소간 평균차이 (RMR)은 0.05이하인 0.012로 적합도는 양호하였으며, 기초부합치(GFI)는 0.9이상인 0.996으로서 적합도가 높았고, 조정부합치(AGFI)도 0.9이상인 0.985로 적합도는 양호하였고, 근사제곱근평균제곱오차(RMSEA)는 0.05보다 낮은 0.000으로 나타나 좋은 모델로 볼 수 있었다. 증분적합지수에서는, 표준적합지수(NFI)는 0.9이상인 0.994로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하였고, TLI는 0.9이상인 1.000으로 적합도가 양호하였으며, 비교부합지수(CFI)는 0.9이상인 1.000으로 적합도가 양호하게 나타났다<Tabl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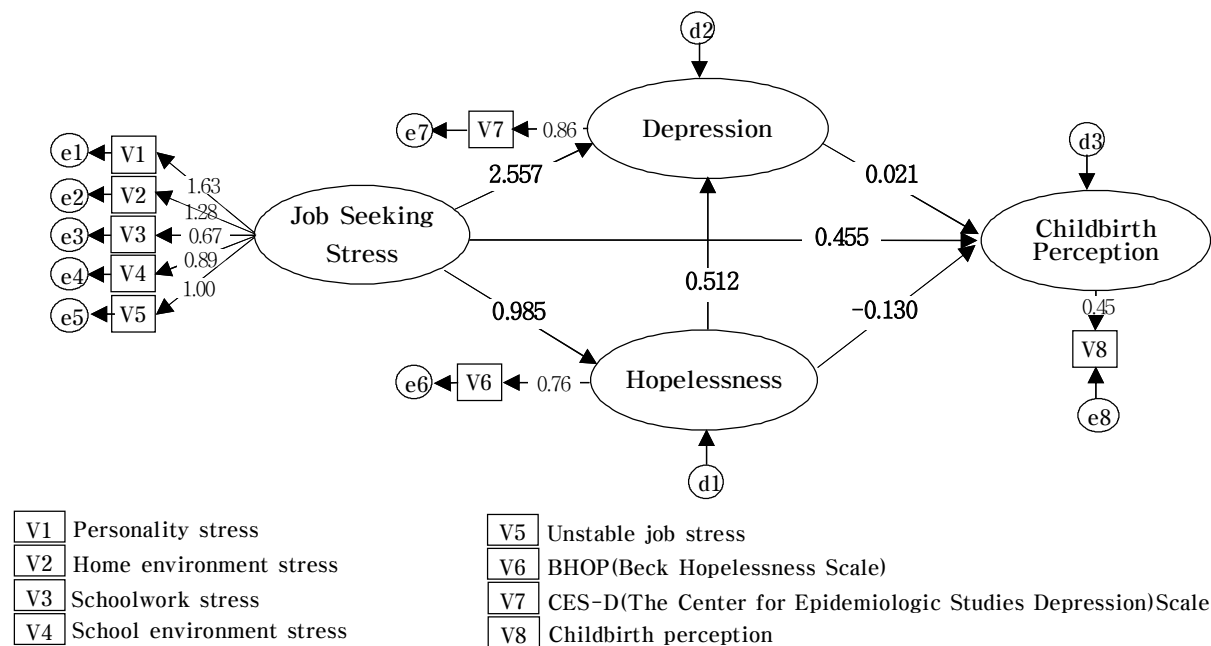
<Table 6> Model identification

Model Fit	
$\chi^2 = 9.668(df = 11), p = 0.561$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 0.012	
Absolute fit index	GFI(Goodness of Fit Index) = 0.996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0.985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000
Incremental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 0.994
	TLI(Tucker-Lewis Index) = 1.000
	CFI(Comparative Fit Index) = 1.000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hildbirth perception and related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Childbirth perception	1								
2 Age	0.068	1							
3 Personality stress Home	0.167**	0.120**	1						
4 environment stress Schoolwork	0.153**	0.129**	0.613**	1					
5 stress School	0.133**	0.085*	0.626**	0.561**	1				
6 environment stress Unstable job	0.174**	0.177**	0.594**	0.547**	0.623**	1			
7 stress	0.194**	0.124**	0.700**	0.600**	0.506**	0.575**	1		
8 Hopelessness	0.053*	0.018	0.376**	0.343**	0.450**	0.277**	0.298**	1	
9 Depression	0.125**	0.068	0.497**	0.408**	0.444**	0.331**	0.374**	0.431**	1
M	3.742	19.750	10.537	8.066	6.689	6.171	4.011	3.040	16.833
SD	2.135	2.125	4.468	4.058	3.166	2.916	1.925	3.960	10.832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외생잠재변수의 효과를 보면, 취업스트레스는 출산인식에 대한 경로계수가 0.455로 정(+)의 직접효과, 무망감에 대한 경로계수가 0.985로 정(+)의 직접효과, 우울에 대한 경로계수는 2.557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내생변수간의 경로계수를 보면, 무망감은 출산인식에 대한 경로계수가 -0.130로 부(-)의 직접효과, 우울에 대한 경로계수가 0.512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우울은 출산인식에 대한 경로계수가 0.021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경로계수는 출산인식에 대한 우울의 경로계수를 제외한 모든 경로계수가 1%수준으로 유의하였다<Table 7>[Fig. 1].



[Fig. 1] Path diagram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able 7> Structural model of endogenous and exogenous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Hopelessness	Depression	Job Seeking Stress
Hopelessness			0.985**
Depression	0.512**		2.557**
Childbirth perception	-0.130**	0.021	0.455**

* : p<0.05 , ** : p<0.01

4. 고찰

여대생의 출산인식 점수는 평균 3.74±2.13이었고 일반적특성에서는 연령이 높은군, 종교가 있는군,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군, 음주를 하지 않는군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 특성에서는 성격스트레스가 높은군이, 가족환경스트레스가 높은군이, 학교환경스트레스가 높은군이, 취업불안스트레스가 높은군이, 무망감은 중증도 및 중도군이, 우울은 경도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출산인식 점수는 대학생 대상 3.35±1.14[2]보다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이 여대생으로 한정된 결과로 보인다. 출산에 대한 선택은 일차적으로 여성의 문제로 출산인식에 대한 조사는 여대생 대상으로 시행해보는 것도 장래 출산으로 이어지는 예측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스트레스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학업보다는 개인가치관[9], 가족환경[2, 11] 및 취업문제[10] 등이 출산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출산인식과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 특성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출산인식은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 무망감, 우울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연령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출산인식은 취업스트레스에서 성격, 가족환경, 학업, 학교환경, 취업불안과 관련성이 있으며, 개인 및 가족의 가치관[9], 취업문제[10]와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취업스트레스가 높고, 무망감 및 우울 수준이 다소 높은군은 사회에 진출하여 취업 및 결혼에 대한 압박감을 갖는다는 것으로 출산인식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취업스트레스를 외생잠재변수로, 무망감, 우울 및 출산인식을 내생잠재변수로 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델 적합성은 양호하였으며,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외생잠재변수의 효과를 보면, 출산인식은 취업스트레스로부터 경로계수가 0.455, 무망감으로부터 -0.130, 우울로부터 0.021로 나타나, 취업스트레스는 무망감이나 우울보다는 출산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과 출산인식의 융복합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취업스트레스는 무망감에 대한 경로계수가 0.985, 우울에 대한 경로계수가 2.557로 나타났고 무망감은 우울에 대한 경로계수가 0.512로 나타나 취업스트레스가 무망감 및 우울과 무망감이 우울과 보이는 관련성[7, 19, 20, 21]이 확인되었다.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생각과 우울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22, 23]. 개인의 성격, 가족환경, 취업불안, 무망감 및 우울 등의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스트레스 문제는 개인의 걱정, 초조, 불안, 신경과민, 가족환경, 학교환경, 취업불안 등을 측정하고 있어 여대생들은 취업경쟁 및 고용불안 등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무망감 및 우울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출산인식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대생의 출산인식은 일반적특성에서 확인된 인구사회학적, 학교생활 및 건강관련행위 특성의 여러 요소들과의 차이뿐 만아니라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출산인식에 대하여 취업스트레스는 직접효과와 무망감 및 우울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소를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을 측정하는 척도를 활용하여 모형을 수립하였고 이들의 상호작용 및 출산인식에 대한 융복합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 수준을 관리함으로써 출산인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도 있음이 파악되었고 특히, 취업스트레스를 관리함으로써 출산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여대생의 출산인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프로그램에서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이

결과를 여대생의 출산인식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단면적 연구이므로 이를 확대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여대생의 출산인식에 융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스트레스[24, 25], 출산장려정책[26] 등의 추가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부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과 출산인식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시도하였다. 2016년 3월 28일부터 2016년 4월 29일까지 임의로 선정된 전 북지역 소재 3개 대학에서 무작위 추출된 여대생 531에 대한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 결과가 분석되었다.

여대생의 출산인식은 연령이 높은군, 종교가 있는군,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군, 음주를 하지 않는군, 성격스트레스가 높은군이, 가족환경스트레스가 높은군이, 학교환경스트레스가 높은군이, 취업불안스트레스가 높은군이, 무망감은 중증도 및 중도군이, 우울은 경도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출산인식은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 무망감, 우울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과 출산인식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출산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인식에 융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업스트레스, 무망감 및 우울에 대한 보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대생의 출산인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FERENCES

- [1]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opulation Census, 2016
- [2] S. A. Hong, H. R. Yoon, "A study on family values influencing on university students' childbirth inten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6, No. 3, pp. 197-208, 2012.
- [3] S. Y. Bae, "Related variables to the childbirth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Health and welfare, Vol. 14, pp. 147-164, 2012.
- [4] I. O. Kim, H. J. Wang, G. C. Jeong, S. Y. Choi, "The effect of policy on childbirth encouragement and working time on secondary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4, No. 3, pp. 139-155, 2011.
- [5] S. J. Jung, "Influence of the hoping number of children, the policy of childbirth, and the causes of reduced childbirth to the perception of childbirth in health-lin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8 pp. 5031-5041, 2014.
- [6] S. H. Kim, S. Y. Bae, "Analysis of convergent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among some college women of health affiliated educ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0, pp. 367-375, 2015.
- [7] S. Y. Bae, S. H. Kim,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and job seeking stress on depression among college women of health affiliated educ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3, pp. 269-278, 2016.
- [8] H. J. Kim, Y. R.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 stress and career maturity of dance majoring students", Korean J of Dance Education, Vol. 8, No 2, pp 57-84, 2008.
- [9] H. N. Jang, M. S. Lee,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married-working women's childbirth intention", Fam Environ. Res., Vol. 51, No. 4, pp. 425-438, 2013.
- [10] N. Shin, "Exploring pathways from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to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2, No. 3, pp. 405-420, 2013.
- [11] Y. S. Lee, H. Kim, J. W. Le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childbirth according to the types of family values",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0, No. 1, pp. 109-140, 2016.
- [12] A. T. Beck, A. Weissman, D. Lester, L. Trexler,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 scale”, J Consult Clin Psychol, Vol. 42, No. 6, pp. 861-865, 1974.
- [13] M. S. Shin, K. B. Park, K. J. Oh, Z. S. Kim, “A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9, No. 1, pp. 1-19, 1990.
- [14] A. T. Beck, R. A. Steer, “Manual for the beck hopelessness scale”,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 1988.
- [15] M. M. Weissman, B. Z. Locke, “Comparison of a self-report symptom rating scale(CES-D) with standardized depression rating scales in psychiatric populations”, Am J Epidemiol, Vol. 102, pp. 430-431, 1975.
- [16] M. J. Cho, K. H. Kim,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32, No. 3, pp. 381-399, 1993.
- [17] K. D. Bailey, “Methods of social research”, N.Y. The Free Press. 1987.
- [18] C. J. Park et al.,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Chagisa. 2014.
- [19] S. Y. Bae, Y. C. Cho,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hopelessness, psychosocial stress and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6, pp. 3685-3695, 2014.
- [20] S. H. Kim, S. Y. Bae, “Factors related to occupational stress among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433-443, 2014.
- [21] S. Y. Bae, S. H. Kim,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human nature factors, mental health factors and fatigue on occupational stress among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3, pp. 221-229, 2015.
- [22] K. M. Yang,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1, pp. 113-123, 2016.
- [23] K. A. Chung, J. H. Cho, “Differences between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t on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43-155, 2015.
- [24] Y. H. Kim, M. S. Yang, H. R. Park, “A study on a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1, pp. 291-301, 2015.
- [25] E. Y. Chin, S. S. So, M. I. Lee, “Effect of life stress and anger expression in college students on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409-418, 2015.
- [26] M. S. Jang, H. S. Yang, “Study on the influence of child birth promotion policy due to postpartum care and maternity leave to economical activities in the era of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0, pp. 245 - 254, 2015.

김 승 희(Kim, Seung Hee)



- 1995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보건행정학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보건행정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행정, 건강보험
- E-Mail : shkim@jvision.ac.kr

배 상 윤(Bae, Sang Yun)



- 2007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14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보건학박사)
- 1996년 9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학, 보건교육
- E-Mail : sangyb@jvision.ac.kr